

나눔터 계간 제31호

1999 · 8

보관용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박우건)
 성폭력문제연구소 긴 여운을 남기는 캠프가 있다(유니경미)
 기획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성폭력에 관한 서을 심포지엄 '99(한은희)

여기는 상담실 4

대학내 성폭력 이야기하기 (본 상담소 학내지원팀)

성문화 읽기 10

21세기여성 · 미디어운동센터 포르노에 이의를 제기하며(오정진)
 미스코리아 대회VS 안티미스코리아 대회(김신명숙)

해외소식 일본의 여성운동, 여성운동가에 대한 단상(최영애) 11

삶 이야기 혼자 살수는 없는 사람들(박영희) 14

나눔터 게시판 16

오늘의 쟁점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02-576-5450

상담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이런 이유로 해서 스터니다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상담소 개소 8주년 기념행사 <관련내용 - 8, 9쪽>

〈제11기 야간상담원(지킴이) 교육〉

직장이나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제11기 야간상담원교육이 4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상담소 교육실에서 진행됐다. 본 교육을 수료한 60여명의 교육생들은 실습을 마친 후, 상담소에서 야간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2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99년도 상반기 상담원교육이 5월4일부터 6월17일까지 7주간 주2회 64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2기 상담원들은 여성학, 상담심리학, 성폭력상담의 유형별 상담요령에 대한 교육과, 경찰청·재판·산부인과 병원·싸이코 드라마 참관, 그리고 8시간의 상담실습을 마치고,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

〈심리상담지원위〉

6월 18일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제와 상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리상담지원위 모임이 이루어졌다. 본 행사는 한해동안 심리상담지원위의 피해자 지원체제 운영방안, 지원프로그램 및 상담 방식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심리검사지 작성과 활용, 상담원을 위한 전화상담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면접상담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야간간사 수퍼비전, 후유증에 대한 특강 등 피해자 지원과 상담원 재교육을 위한 하반기 상담소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KBS '시청자 의견을 들읍시다'〉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에서는 KBS TV청춘드라마 <광끼>를 모니터하여 KBS <시청자 의견을 들읍시다> 'TV속으로'에 방영(7월 17일)하였다. 드라마에 등장한 여성인물의 캐릭터에 대한 분석과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본 센터 박혜은 회원이 토론자로 출연하였다.

〈캠프〉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에서는 7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강화유스호스텔에서 10대 여자청소년 18명과 함께 "홀썩 크는 캠프 3: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을 실행했다. <관련내용 - 7쪽>

〈'99 토요일률상담 변호사 전체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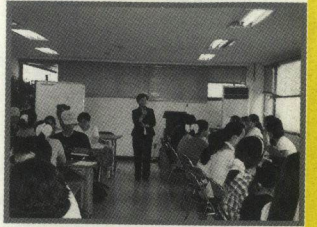
'99 토요일률상담 변호사 전체모임이 7월 15일 호화반점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토요일률상담을 해 오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상담소 활동과 토요일률상담 경과 등의 활동보고, 운영평가, 운영방향 협의, 법적 지원사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방법 협의 등이 이루어졌으며, 성폭력특별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대한 개정안과 시안을 검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십대 매춘상대자 신상공개를 위한 서명운동〉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성문화대책위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적노리개로 삼는 풍조의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자 10대 매춘상대자 신상공개를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소속 각 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본 상담소에서는 5월 21일 양재역에서 상근자와 각 자활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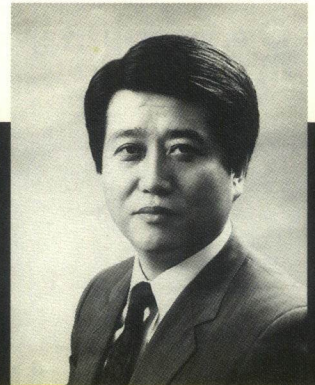
〈정신대수요시위〉

제365차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본 상담소 주관으로 6월 1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제12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이 함께 참여한 이번 시위는 본 상담소 조중신 일반상담부장의 사회로 정대협의 경과보고와 이미경 부소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제창으로 365차 수요시위를 마무리했다. **나눔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박우건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 차별개선조정관)



본 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반응 및 반향은 다른 어떠한 법보다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는 성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이란 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우리사회 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남녀차별 문제에 관한 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과 제도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6일 국회에서 의결, 법률 제5,934호로 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성차별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동법의 제정은 2000년을 몇 개월 여 앞둔 이 시점에서 볼 때,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이어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한 측면에서 한국여성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법의 추진목적 및 배경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개방화·정보화에 따른 21C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등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개선하여 나가는 데 그 큰 뜻을 두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차별적인 구조적 행태는 여러 분야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기회와 대우를 제한하고, 배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러한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및 사회와 가족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특별위원회에 “준사법 기능부여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고용, 교육 분야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여성특별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시정신청이 있으면 당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그 대상이 민간이든, 국가기관이든 차별에 대한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규정하여 명량한 직장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별여부, 성희롱의 결정기준은 당 위원회가 수차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대표적 유형을 고시로 관보(7.1자)에 게재한 바 있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동법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았지만 본 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반응 및 반향은 다른 어떠한 법보다도 컸다고 생각된다. 이는 성차별을 하면서도 차별이란 의식조차 갖지 않았던 우리사회 의식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남녀차별 문제에 관한 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법과 제도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성차별 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부각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사회활동의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눔터**



대학내 성폭력 이야기하기

본 상담소 학내지원팀

1. 대학, 우리 사회 속의 대학

대학이라는 공간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학문적 탐구의 공간인 동시에 모든 사회적 문제와 폭력으로부터 동떨어진 공간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신정휴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가 접할 수 있었던 몇몇의 사건만으로도 대학 역시 일반 사회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상담소에서 조사한 상담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의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일반의 다른 성폭력 사건 유형에 못지 않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대학내 성폭력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본 글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그리고 원인을 짚어봄으로써 학문적 탐구의 공간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보장되어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1994년 신정휴 사건으로 연대한 '신정휴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여성문제 동아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청회에서 정의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 1>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2> 그러한 행위의 거부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 내 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등)이고,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대학내 성폭력의 잠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대학내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를 바탕으로 본 상담소 학내지원팀에서 실시한 상담통계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 - 피해자 관계	건수(횟수)
교수-제자	24(103)
교수간	1
선후배	33(48)
동기	16(28)
교직원	1
합계	75(181)

* 97. 1. - 98. 6. (전체상담 5448회 중 181회로 3.3%)

* 피해자, 가해자 모두 같은 학교 소속일 경우를 기준으로 함.

학교간, 외부인에 의한 피해 등은 제외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별, 나이, 직위 등 복합적 권력관계를 보이는 교수나 선배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83.4%)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교수-제자간의 성폭력>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신체접촉, 데이트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선배-후배(동기)간의 성폭력〉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까지 포함한 성폭력

〈그 외의 성폭력〉

-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

-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위의 유형 외에도 집단적인 남성 대학문화에 의한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기존사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빈번하고 다양하다.



3. 성폭력을 방지하는 대학문화

이렇게 현 사회의 성문화가 그대로 답습되어지는 듯이 보이는 대학내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공간의 특수성을 가진다. 대학사회는 공동체문화, 단결, 단합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공동체의 이념, 가치 등에 의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성별이나 연령적인 차이를 떠나 학우 동료로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막 허락된 이성과의 자유로운 교제에 대한 관심과 일반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보다 쉽게 성폭력에 노출된다.

‘우리는 너희를 동료로 바라본다’라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말들 속에 성차별적인 현실을 무시하게 만듦으로써 더 많은 성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집단에서 소외되거나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부정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인들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괴로움보다는 집단의 분열과 대외적 망신을 당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게다가 신뢰와 친밀감으로 무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배나 교수가 가해자라면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가 의사표현을 하거나 성폭력 이후의 대응을 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제시간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교수집단 혹은 학교와 피해학생의 문제로 되기 쉬워 피해학생이 감당해야할 어려움이 다른 사건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앞으로의 대학, 대학문화

몇 년간 대학 내에서 진행된 성폭력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이 대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소리 없는 변화에 힘입어 많은 대학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올바른 성담론을 끌어내기 위한 크고 작은 행사들이 계속 열리고, 연대체의 학내 여성단위 모임에서 관련 학칙을 고민해 왔으며, 이미 ‘성폭력 관련 학칙’을 제정한 학교도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 술자리 혹은 성인식과 관련하여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적인 문화들, 실제 주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인식과는 달리 피해학생에게 여전히 책임을 지우거나 피해 학생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학내 단위의 가해자 처벌 요구를 대학이라는 공간적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 자의적으로 급조하여 제정된 허술한 성폭력 학칙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나눔터**

이에 학내지원팀은 오는 9월, 대학내 성폭력과 연관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피해학생과 학생자치단위, 대학교직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점을 공유하여 더 나은 대학의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여기는 상담실/ 열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입소 상담 ☎ 529-4271~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열림터가 1999년 9월 30일로 개소 5주년을 맞는다. 6월 30일 현재 118명의 내담자가 열림터를 거쳐갔으며, 그 중에 피해연령은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서 7세 이하가 5명, 8-13세 30명, 14-18세 45명, 20세 이상인 성인이 15명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은 열림터 내담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유아 및 아동기 때부터 지속적인 성추행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강간으로 이어지게 된 근친강간피해자이다.

내담자들이 입소할 때에는 MMPI, MBTI, HTP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주 1회 이상의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에 참여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한 입소자 전원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신경정신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의 지원과 고소(열림터 피해자의 농정도가 고소) 시 경·검찰 동행 및 법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열림터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육체적인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퇴소한 내담자 중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속상담이 이루어지며, 이들은 1년에 1-2회 정도의 입소자·퇴소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5월 15일에는 문화행사의 하나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상담원선생님과 현 입소자와 퇴소자들이 어울려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도 하였다.

추석이나 설에는 열림터 친정(퇴소자들 사이에서 힘들 때나 방학, 명절 때 등에 찾는다하여 붙여진 이름)을 찾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송편만들기'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열림터 및 상담원선생님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두 번에 걸쳐 입소자와 퇴소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서로의 지지와 위로를 통해 고립감, 이질감, 자기비하감, 죄책감 등의 피해후유증에서 벗어나며 자기노출, 자기이해를 통해 자기존중, 자신감, 정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특별기획으로 8월17일에서 19일까지 2박3일 동안 자연의 여유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째날인 17일에는 심리전문가인 오현숙 선생님이 진행하는 집단상담으로, 자기소개 및 성폭력에 관한 노출, 성폭력 후유증 및 그 대처 방법, 예술요법과 긍정적 메시지 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이, 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 유니경미 선생님의 성교육(1. 우리를 둘러싼 성문화 2. 성 지식 키우기 3. 순간의 선택, 준비된 선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연을 품에 안고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퇴소자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정서적으로 정화되어가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나눔터

<법률상담7>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피해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해결될 수 있을까?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남녀차별금지법에서는 시행령(제3조4항)을 통해 학교기관의 장이 상담·조사과정을 통해 적절한 대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자체 업무처리요령을 발표, 각급 학교의 고충상담처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되었다. 피해사건이 접수되면 고충처리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판단을 한 후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해, 가해자에 대한 신분·행정상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학교의 고충상담처리기구를 거치지 않고서도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긴 여운을 남기는 캠프가 있다!

유니경미(본 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지금까지 상담소 주관 또는 주최로 세 번의 캠프가 있었다. 대상은 일반 중학생, 빈민지역 청소년, 그리고 이번 참가자. 세 번 모두 기획에서부터 진행, 평가까지 담당하다보니 각각의 색깔과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첫 캠프는 처음이라서, 두 번째는 상담소 차원에서 늘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서, 그리고 이번 캠프 '홀췌 크는 캠프 3: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 매년 중심테마를 바꾸어가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캠프는 '자기찾기'가 중심이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후원이 있었고,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 캠프의 대상은 청소년은 청소년이되, 기출의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이기 때문이었다.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서부터 만만치 않았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모집할 수 있을지 궁금해할 정도였다. 참으로 많은 시설을, 그것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화를 하여 같은 설명을 매번 되풀이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참가자가 선정되었고 끝 이들의 프로필이 전해졌다. 캠프팀(권수현, 김병숙, 정미영, 정호현, 김영숙)은 무거운 심정으로 이들의 역사를 읽어 내려갔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 그러나 괜히, 심심풀이로 혹은 폭발적인 호기심만으로 본격적인 가출을 하는 이는 없다. 적어도 이번 캠프의 참가자들은 그랬다. 가장 많은 이유가 폭력적인 아버지, 혹은 부모의 무관심과 몰이해를 견디지 못해서였다. 적어도 가만 앉아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는 가출로 연결되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양한 통로를 거쳐 현재 있는 시설로 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삶에 대해 그만큼 열정과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다. 자기 인생에서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정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이들이 눈에 금새 띄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였다.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놀이프로그램과 편안한 자기표현 작업에 시간과 공을 들였다. 놀이는 갯벌과 수영장, 그리고 조그만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의 5명으로 구성된 팀이 몸짓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작업을 도와주었다.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빨리, 더 솔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들 팀의 평가였다. 자기표현 작업(캠프에서는 '연극놀이'와 '마음의 행로 추적하기'로 이름붙였다)의 후반부로 가면서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네들이 받았던 일방적인 강요, 횡포에 가까운 부당한 대우 등을 표현하였으며 그때의 심정이 칼로 손목을 긋고 싶고, 상대의 목을 누르고 싶은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이들이 얼마나 고통과 외로움과 소외 속에서 여러 어른과 제도에 의해 이리저리 치여 왔던가가 그대로 나타났다. 진행을 도와주던 캠프팀 스태프와 연극팀원 몇 명이 그 과정에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울음을 터트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아이들은 숙연하기도 하다가 떠들기도 하다가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그 상황에 빨려들 듯 참여하고 있었다. 바로 자기 이야기들이니까. 너무나 그런 식의 상황에 놓여보았으니까.

중간중간 아이들은 참 여러 번 (진행팀 입장에서 보아) 이유도 없이 토라지고, 화내고, 게으름 부리고, 무표정해지고, 잠들어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그래도 성폭력이나 성병 등을 퀴즈식으로 풀어가라 했을 때 짓던 진지한 표정은 앞서의 난감함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캠프의 목적은 막상 캠프를 진행하면서 애초의 것과 멀어져갔다. 애초에는 이들이 경험한 바를 스스로 객관화하면서 예전에 걸었던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입에서 자기의 짧지만 험난했던 삶을 풀어보게 하는 것이 주요전략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들이 자기를 찾아가려면, 건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고귀함과 유일함과 힘에 대해 눈떠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험한 상황에 놓였는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적어도 이번 캠프에서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세상에 있다는 것,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자기들을 염려하고 자기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런 기대를 받을만하다는 것을 그 순간이나마 느껴주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이런 변경된 목적이 실제 아이들에게 잘 먹혀들어갔는지 어쨌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헤어지는 순간에 아이들이 보여준 따뜻한 포옹과 눈물의 의미를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기겁하게 다가가 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감정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텐데... **나눔터**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한은희 (본 상담소 성평등교육문화센터 부장)

본 상담소는 8년간 성폭력피해자 상담과 지원활동을 해오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체계적인 의료적·심리적 지원임을 절감하였다. 상담수의 성폭력피해자들이 법적 증거물을 확보하기 어려워 고소를 못하고,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신체적 상해, 성병감염, 임신, 낙태 등의 문제로 심각한 장기 후유증을 겪게된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그리고 개인병원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고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응급처치나 증거물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의사가 별로 없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규제하는 조항도 없어 거의 현실적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상담소는 민간차원에서나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따뜻한 애정을 갖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힘입어 우리 사회 최초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적·심리적 지원망 구축의 첫걸음을 디디기 위한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를 5월 30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Session I. 우리 사회 성폭력의 실태와 의료적 지원현황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 및 과제> 는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발표하였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성폭력 예방 측면에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의 실시,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 방안 마련, 공익광고의 활용,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성희롱, 스토킹 등 새로운 범죄 유형을 포함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후 지원적 측면에서 의료 제도적 연계망 구축을 위하여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의료보조 조항을 현실화 시켜서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국공립병원이 연계되어 성폭력사건에 필요한 증거채취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비용에 대해 부담을 갖는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험수가를 정하는 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산부인과 처치> 에 대해서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와 성인 피해자로 구분하여 본 상담소 대표이사인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과 임용택 가톨릭의대 교수가 각각 발표하였다. 성폭력피해자가 내원한 경우 의사가 해야 하는 진단과 처치는 ①자세한 성폭력 기록 및 부인과 병력의 기록 ②피해부위 파악, 기록 및 치료 ③각종 배양 검사 실시 및 성병 예방 ④원치 않는 임신 예방 ⑤상담 ⑥추적 관찰 ⑦법적 증거물 채취 및 기록이다.

피해자를 상담하기 전에 의사는 내담자의 병력을 문진하는 것, 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사진 촬영, 얻어진 법적 증거를 수사당국에 넘겨주는 것, 치료를 받는 것 등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피해자는 민감성과 취약성 때문에 성인 피해자에 비해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하며, 상담전문가, 소아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되어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고 피해 극복을 도와야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므로 지역별로 의료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어린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는 소은희 신경정신과 원장이 발표하였다. 어린이 성폭력은 가족의 문제이며 특히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치료에 가족이 참여하여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지지를 증가시키고 피해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그러므로 어린이 치료, 형제치료, 가해자가 아닌 부모의 치료, 가해자 치료 그리고 가족 치료 순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한양의대 신경정신과 안동현 교수는 <성폭력 장기 후유증의 정신과적 치료> 에 대한 발표에서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4단계별 치료전략과 예방을 제시하였다. 개인치료에서는 손상된 신뢰감의 재확립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그 이후에 다양한 집단

치료가 행해질 수 있고 가족 내 성학대인 경우 가족치료는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치료는, 집단치료의 기능뿐 아니라 현실적인 보조, 대중홍보, 성취감이나 사회활동을 통한 고립감 극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므로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련단체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Session II.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지원

심리교육센터 마음길의 이철원 소장은 <심리검사를 통해 본 성폭력피해자의 특징 : 다면적 인성검사를 중심으로>의 발표에서 본 상담소 내담자의 다면적 인성검사 사례 분석을 통해 심리검사가 피해자의 현재상태에 대한 이해와 진단, 치료계획, 상담의 보조도구 및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상황에 따른 다양한 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성심여대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여성주의적 접근방법은 여성이 당면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의 성적인 피해와 상처를 이해하도록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했던 비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제시해주고 피해여성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여성학자나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심리치료 기술이나 상담기술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하였다.

Session III.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확립방안

<효과적인 증거물 처리와 상해진단서 작성>에 대한 발표에서 서울대 법학과 이윤성 교수는 피해물증 확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실제로 도와주는 기관이나 병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은 성폭력을 은폐하는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판단으로 "강간"이라는 진단을 해야 하며, 만약 그런 진단을 할 수 없다면 "외부생식기좌상", "치녀막 파열", "멍, 여러 군데", "질 내용물에서 유동성 정자확인" 등의 의학적 소견만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인 조희진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인격침해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법 집행 공무원의 성인지적 시각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개선방안으로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시행, 여성관련범죄 전담수사반, 여성수사관제도의 확산, 수사관계자의 교육 확대,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미8군 병원 오현숙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성폭력피해의 의료적 지원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의 발표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제·개정되었으나 전문신고센터설치나 여검사제도 도입, 전문의료기관의 설치는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전문 의료기관의 설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완이 되지 못한 채 상담소와 연계를 갖고 있는 몇몇 개인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료기관이 설치되면 잘 훈련된 다학제간의 전문 의료팀들이 피해자를 적절히 다룸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아동과 성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미8군 병원의 성폭력피해 지원체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지원은 1>생명과 건강에 대한 처치(산부인과 처치 포함), 2>법의학적 대처, 3>정신심리적 구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세 측면의 의학적 지원과 법 제도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의 유기적 체계의 토대마련을 위한 다학제간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성폭력상담소 관련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토론의 열기 속에서,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재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논의의 장에 경찰, 검찰 분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각 분야에서 피해자 지원의 전문화와 연계를 위한 제도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성폭력피해자들이 위기 시 각 병원의 응급실 혹은 각 상담소에서 증거물 채취를 할 경우에 대비한 <Emergency Kit>를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나눔터



포르노에 이의를 제기하며

오정진 (본 상담소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모니터팀)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가? 호기심어린 눈으로 돌아다니던 인터넷에서, 음부를 드러낸 채 앉아 있는 소녀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들이 몸소 보여주는 갖가지 체위의 성행위는 또 어떠한가?

혹자는 그나마 포르노를 통해 인간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성행위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으며 성교육의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더 많고 다양한 포르노를 접하게 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얻은 정보라는 것이, 강간당한 여자가 얼마나 교성을 지르며 오히려 성관계를 즐기고, 여자가 남자에게 맞으며 도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었다면 어떨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성과 관련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게 포르노라 그런 것들은 이미 익숙해질 지경으로 널려 있다. 자연히, 자극에 대한 통제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일반적인 성관계로 받아들일 위험도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가 그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강간범이나 잠자리에서 자극을 줄 요량으로 아내에게 핵대를 휘두르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성관계와 여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축적하게 되는 것은 다만 폭력적인 포르노를 통해서만이 아닌 것 같다. 폭력이 등장하지도 않고 지극히 에로틱하게만 보이는 포르노들도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특히 '분출'을 최고의 과제로 삼는 남성성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불사하는 여성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시간에 걸친 성적인 공략을 각본처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의 성관계에서는 그것들은 몽땅 거짓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실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나마 허구를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뒤통지 해 주는 여자'를 현실에서 고집하는 사람도 꽤나 많은 모양이다.

하긴, 잘못된 정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도 하다. 굳이 포르노를 구해보지 않아도 포르노적 이미지는 도처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탓이다. TV와 신문에서, 가판대에서,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광고판에서, 어디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전시된 여자들이 있다. 남자들이 바라는 환상적인 몸

매를 가진 그녀들은 뇌쇄적인 시선을 던지고, 다리를 벌리며, 남자아래서 벗은 몸으로 헉헉 가쁜 숨을 몰이쉬다. 덧붙여, 남성의 강한 성적 매력을 칭송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욕망을 상품화하여 한껏 팔아제끼자는 전략이다.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대개는 남성들이거니와, 남성이 수요자의 대부분을 점하니 자연히 상품의 내용이나 판매방식 역시 남성들을 위해 짜여진다. 여성들의 실제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과 사람간의 성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해진 지 오래이다.

물론, 포르노를 어떻게 다스려 보자는 얘기는 진작에 나왔다. 포르노의 범람과 도덕성의 타락을 연결시킨 주장에 따라 성적인 것을 싸잡아 금지 않은 눈으로 보기도 했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린 혐의로 소설이나 연극, 만화 따위를 음란물이라 하여 사법적으로 단죄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포르노의 자유로운 접근을 외치는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청소년에게 포르노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선 다들 우려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등속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 속에 정작 여성의 목소리와 여성에 대한 고려는 그다지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O씨 비디오키' (성인이므로 당연히 '양'이 아니라 '씨'로 불러야 한다)에서 여성의 성적 프라이버시는 외면 당하다시피 했고, '빨간마후라'를 구해 본 사람들은 10대의 맹랑함과 문란한 사회의 성의식을 질타할 줄만 알았지 그 안에서 소녀가 몇 번이고 아프다고 호소했음에도 목살 당했다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포르노에 대한 저마다의 처방책들은 기우뚱할 것임은 능히 짐작되는 바이다.

그러니, 도덕성 운운하며 성 표현 일체를 억압하거나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제를 절대시하기보다는, 포르노는 바로 왜곡된 우리 성문화의 반영임을 인식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나눔터**

오는 10월 15일 "포르노/미디어/여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기초발제 '포르노그래피와 성폭력' (최영애/본 상담소 소장)에 이어 '미디어 섹스의 현안' (전석호/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 '포르노그래피와 표현의 자유?' (박형상/변호사), '포르노그래피와 성정치학' (공미혜/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 글은 일본 여성운동과 여성운동가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한 글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여기에 담은 내용은 전적으로 금년 6월 중순경 니가타 시에서 열린 '일본 여성폭력 대책 심포지엄'과 동경 정신의학연구소 정신병리학팀이 주최한 '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워크숍' 주제 발제자로 참가하면서 느낀 나의 단상에 불과하다.

내가 일본 여성운동가와 접한 서너 차례의 대규모 모임과는 달리 이번 모임은 일본 여성들만의 모임에 한국 여성운동가로 단독 초청된 경우로, 이 두 모임에 나를 강사로 초청한 '아이코 하다'라는 여성과 4박5일간 숙식을 함께 하며 밀착된(?) 교류를 통해, 일본 여성폭력 관련 운동에 대한 단편적 정보와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하나의 像을 나름대로 갖게 되었다.

여기서 이러한 나의 단상을 펼쳐 보이는 것은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현재 일본 여성폭력 관련 운동의 주된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일본 여성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힘 기르기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싶다는 소박한 이유에서이다.

내가 첫 번째 참석한 "여성폭력 대책 심포지엄"은 일본 전지역에 있는 20여 개의 여성폭력 관련 쉼터들 중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한 연합체가 주최한 5차 연례 심포지엄이었다.

이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크게 여성폭력 대책방안 중 여성폭력 관련 법안 마련, 쉼터 운영에 대한 재정적 자립방안이었다. 이들이 내게 요청한 주제도 한국에서의 여성폭력 관련 운동의 전개방식과 관련 법안 마련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주제 강연 이후에 쏟아진 질의의 대부분도 법안 마련에 관한 것으로 이 문

이러한 두 모임에서 나는 현재 일본 여성폭력 관련 운동의 주된 관심사가 법안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수립에 모아져있고 이를 위해 현장 운동가뿐 아니라 전문가집단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 역시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령대와 여성폭력 관련 쉼터가 발족하게 된 배경은 한국과 조금 다른 양태를 갖는 것 같다. 우선 한국 여성운동가의 연령대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은데 비해 일본 여성운동가는 60대가 가장 많고 50대, 40대로 내려가며 20대가 가장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뜻있는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여성폭력 관련 쉼터가 세워지는데 비해 일본 여러 곳의 쉼터가 피해자가 주축이 되어 세워지거나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피해자 사건 지원자들을 주축으로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 여성운동은 전국적 연대기구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소규모 그룹의 지역 운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양태를 띄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문제는 대중적 기반이 약하고 소수의 관심있는 사람들의 열의로 전개되어 오며 여전히 일본사회의 주변적 관심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두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헌신적인 모습을 접하면서 일본 여성운동의 잠재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첫날 리셉션에서 각 단체의 활동을



일본의 여성운동, 여성운동가에 대한 단상

“일본 여성폭력 대책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제가 현재 일본 여성폭력 관련 운동의 현안이며, 구체적 전략을 모색·수립하는 실행적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쉼터의 재정적 자립의 문제는 워크숍의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정도로 현재 일본 여성폭력 관련 운동가들이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여성운동의 현실은 사실상 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 관련 법안을 먼저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일본 여성운동가들은 한국 여성운동을 여성운동 선진국(?)으로 간주,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을 주제로 동경에서 열린 전문가 워크숍은 니가타 심포지엄과는 달리 20여의 소규모 인원으로 주 참석자는 상담심리학자, 정신의학 전공자 등 학자, 연구원 등이었고, 소수의 쉼터 책임자들이 함께 했다. 여기서는 주로 효과적인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체계 마련방안이 논의되었고 내게는 한국에서의 피해자 지원체계 및 문제점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말·단막극·노래로 풀어내면서 합심동체의 연대감을 향유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사회 여성운동가 모임과 너무나 흡사하여 마치 한국여성운동가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국경을 초월한 여성연대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실제로 여러 명의 유학생 출신 한국여성들이 이 운동에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내게 보여준 따뜻한 호의는 단지 초청자에 대한 의례적인 행위가 아닌 여성문제를 위해 함께 가는 동지애의 표현으로 와 닿았다.

여성문제에 대한 세계적 연대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며 한국 여성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고받는 일본 여성들과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비록 일본 여성운동에 대한 단편적 스케치에 불과하지만 여기서의 나의 소갯글이 일본 여성운동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나눔터**

미스코리아 대회 VS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김신명숙 <(if)> 편집위원/작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고야 마는 체제다. 심지어 인간의 인격까지도 상품성에 의해 좌우되고 평가받는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 살면서 가장 상품성이 강한 성(性)이 상품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물에 들어가서 몸이 젖지 않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무망한 노릇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성의 상품화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탓이다.

매춘이란 단어는 당연히 여성을 떠올리게 하고 어쩌다 남자 매춘이 나타나면 정부가 먼저 질겁을 해서 처벌의 칼날을 들이대고자 혈안이다. 미녀대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호하고 있는데 미녀대회는 마치 외계문명권에 속해 있는 말처럼 낯설다. 섹시함의 가치는 여성과 남성에게 너무나 다르게 적용된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인간이지만 여성은 젓가슴이고 엉덩이며 구멍이다. 이같은 관계는 권력과 경제력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남성들에 의해 수 천년간 지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창녀나 하층의 여자가 아닌 보통의 혹은 보통 이상의 여성들을 수영복만 입힌 채 무대위에 진출시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미인대회의 첫 고안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남성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최고상을 수상해야만 할 것이다. 그만큼 미인대회는 남성의 중단없는 번영을 위해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미스아메리카 대회가 미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한 바로 그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여성들이 성의 계토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자마자 여성을 성상품으로서 무대위에 올려놓고 왕관을 씌워주는 미인대회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선언을 외치기 시작한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가한 교활하고도 음흉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묘하기 그지없는 반격이었다. 그들은 몽둥이가 아니라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희들이 있을 곳은 투표장이 아니라 미용

실'이며 '미용실에 앉아 있어야 왕비가 될 수 있다'고 달콤하게 속삭였다. 그들이 씌워줬던 왕관은 지금 이 시기 한국에서 최고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남성들은 미인대회를 통해 성의 계토에서 탈출하려는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쾌락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미인대회에서 선발된 미녀들, 남성들의 성적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여자들을 닦기 위해 말 그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무조건 예뻐지려는 여성들의 거대한 욕망을 터전으로 이른바 뷰티산업을 일으켜 막대한 돈까지 벌었다.

여성이 인간선언을 할 때 그녀들을 다시 성의 계토로 쫓아보내려는 남성들의 대응은 매우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능력이 있는, 자기 주장이 강하든 어떤 이유로든 감당하기 힘든 여성을 대하게 될 때 인간으로의 진화과정에 있는 일부(?) 남성들이 흔히 성적인 욕이나 폭언을 동원하는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네가 아무리 잘 나봐야 젓가슴이나 엉덩이, 구멍에 불과해. 그러니 입 닦쳐' 하는 식의 야만적 사고가 그들의 흥중에 단단히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을 그런 시각으로 볼 때만 그들은 남성으로서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TV로 중계되는 미스코리아대회를 보면서 다수의 남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은 단순히 미녀들의 몸뚱이가 그들에게 시각적 쾌락을 주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후보들의 섹시한 육체보다는 '예





쁘게 봐 주세요' 하는 그녀들 특유의 말과 표정과 몸짓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미국 팝가수 마돈나는 매우 섹시한 육체를 가졌지만 강한 카리스마의 그녀에게 편안한 즐거움을 느끼는 남자는 별로 없다니까.

미스코리아 대회의 무대에서 있는 후보들은 완벽하게 무력하다. 그녀들은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서 선택되기를 고대하며 마네킹처럼 진열되어 있을 뿐이다. 심사위원들은 인격이 거세된 그녀들의 몸을 부위별로 나눠 얼굴전체 몇 점, 상체 몇 점, 하체 몇 점 하는 식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한다. 그녀들이 왕관을 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남성권력의 화신인 심사위원들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것뿐이다. 미인대회의 대표적인 특성 중의 하나는 무대의 어느 구석에서도 힘이나 주체성이나 존엄같은 가치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스코리아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수영복 심사고 가장 맥빠지는 부분이 인터뷰 심사라는 것은 미인대회의 특성상 너무나 당연하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이고 그런 일은 성적 대상인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다.

미인대회라는 썩 먹고 알 먹고 식의 수단을 동원해 여성을 계속 성의 계통에 묶어두려 하는 한 여권, 더 나아가 21세기의 화두인 양성평등의 입지는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권과 미인대회는 반비례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미인대회가 극성을 띠는 나라일수록 여권은 맥을 못추고 여권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미인대회는 구시대적 흥밋거리로 전락해 있거나 곧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치는?

열린 답이 떠오르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힌트 한 가지. 대한민국=막강 남성공화국.

(짹짹. 맞았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유명

신문사에서 주최하고, 막강한 위력을 가진 소위 공영방송에서 본 대회뿐 아니라 앞애기 뒷애기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며 우려먹는 이 나라, 일 년에 크고작은 미인대회가 무려 1백 여 회 넘게 열린다는 이 나라는 미인대회의 경쟁력에 관한 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최강국이라 할 만하죠. 거의 중주국 수준이랍니다)

지난 5월 페미니스트 저널 <if>에 의해 개최됐던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은 미스코리아 대회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통에 가해진 따끔한 벌침이었다. 성의 계통에 수용되기를 거부하고 인간선언을 하고 나선 의식 있는 여성들의 한바탕 신나는 축제였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같은 활동에 뜻 있는 여성들의 많은 동참과 후원이 따르리라 믿는다. **나눔터**

<책소개>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

김신명숙 지음, <if> 1999

우리가 일반 사회매체에서 이 책에 대한 평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안티미스코리아 대회'에 대한 기사들 정도가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사들은 대부분 미스코리아 대회에 대한 저자의 분노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 책이 하나의 소설로서 얼마나 미숙한지에 대한 평을 살짝 집어 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각 매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버지'라는 소설에 대해서 소설적 완성도를 논했던 기사를 기억할 수 없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는 이 책의 제목은 이미 이 소설이 하나의 판타지소설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 정말 우리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해버리고 싶다. 정확히 말하면 여성들을 인육처럼 세워놓고 그걸 맛보고 있는 남성적 시선들을.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의 판타지이다.

여성에게는 어차피 여성들에게 약속되는 현실도 하나의 판타지고, 우리들의 진실한 목소리도 하나의 판타지로 묵과되버리는 상황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소설에 대해서 소설적 완성도 따위를 논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의 판타지이다. 우리들의 상상에 대해서 누가 허무맹랑하고 우연성이 너무 강하다는 식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라는 소설. 그것은 부권의 상실에 대한 그네들의 위기감과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던 하나의 판타지 소설이다. '아버지'와 같은, 서점가를 버젓이 가득 채운 그 무수한 대중 소설들에 대해서 그들은 왜 똑같이 평하지 않는가? 남성들의 판타지만이 무수히 널려있고 소비되는 사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제 막 우리들의 상상을 한 번 표현해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상상처럼 구성되어진 이 소설이 얼마나 구체적인 여성들의 현실적 경험을 소재로 쓰여지고 있는가하는 것에 주목할 때 우리는 이 소설이 허무맹랑하다고 말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어쩌면 그 상상을 풀어내는 방식이 우리 여성 사이에서도 저자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판타지를 표현하고 소비할 수 있다는 반가움과 판타지를 현실적인 힘으로 만드는 것, 의미화 시켜내는 힘이 현재 우리 여성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한 번쯤 이 소설을 읽어 볼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킴이 김보연 정리)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벌써 이 년 전이 되었다.

97년 6월 이맘때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여성장애인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여 82개국의 장애 여성들이 마음껏 자기의 얘기를 토하고, 각자 자기들 나라에서 장애여성들이 어떻게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말하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해 8월에 우리는 일을 저질렀다.

오랫동안 생각해오던 중증장애여성 세 명이(후에 한 명이 더 동참하여 네 명이 되었음) 고덕동에 방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집안에서 철저하게 보호만 받아오던 우리가 감히 부모님과 형제들을 떠나 살아보겠다고 하였을 때 주변에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집안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대하는데 사실 뚜렷하게 대안점이란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몰랐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앉아서 어떤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일단 시작해보자고 했다. 우리의 가능성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도 연세드시면서 형제들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나 우리는 가족들에게 의존하며 살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사회에서 부모님들은 딸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안정된 독립이라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희박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독립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결혼이란 것이 미래에 대한 진정한 독립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족들이 우리의 독립을 적극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부모님과 살아야 한다면 -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그렇듯이 - 호적에서 호주인 아버지 아래에 있다가 다시 남자형제들이 나의 새 호주가 되고 나는 남자 형제들의 부양가족이 된다고 이후에는 장손 조카 아래에까지 따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 모든 여성의 현실이다 이러한 되풀이되는 구조 속에서 독립된 삶이 힘든 장애여성은 부양되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무엇보다도 가깝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분들은 역시 우리들의 어머니들이셨다. 어머니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형제에게 의존하게 되었을 때, 집안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게 되는 올케와의 부담스러운 관계로 인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갈등을 지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시고 우리의 독립을 도와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큰 지원을 밑바탕으로 드디어 우리의 독립은 시작되었다.

독립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 년 동안 한시도 긴장 풀릴 시간 없이 바쁘게 지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장애여성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장애여성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들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네 명 중의 한 명은 검정고시를 위한 장애인 야학에 다니게 되었고 나 역시 현재 방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내가 공부하는데 있어 우리집의 장애여성들은 나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가는 날이면 동생들이 새벽부터 도시락을 준비해 주고 휠체어를 밖에 내놓는다. 이러한 지원은 나의 현실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들이다. 1급장애인인 나를 이처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 이 날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여성민우회에서 전문 텔레마케터 교육도 받았고 휴대폰 회사의 고객관리하는 일로 채택 근무도 해보았으나 모두 낮은 임금에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중에 난 직업도 없고 1급장애인이기에 정책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 알아보았다. 그러나 장애여성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란 것이 따로 없었고 그나마 생활보호대



박영희 (장애여성공감)회원

상자가 되어 정부의 보조금을 얼마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 신청을 하는 절차를 알아보았더니 먼저 호적분가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먼저 아버지께 말씀 드리니까, 집을 나가 살아보겠다고해서 내보냈더니 호적분가까지 한다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딸 넷을 키워 세 명을 시집 보낼 때마다 사위 앞으로 딸의 호적을 이전시키면서, 딸은 키울 때에만 내 자식이고 시집을 가면 남의 자식이 되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다. 그래서 딸인 나는 장애인이라 시집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시집도 가지 않으면서 호적분가를 하겠다고 하니, 납득을 하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호적분가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 보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었다. 누군가에게 시집간 것도 아니면서 호적에 독신으로 분가한 것이 보기 좋지 않은 것도 있으신 것 같았다.

이러한 우리나라 호적에 대한 관념들에 맞서면서 힘들었던 과정과는 너무도 다르게 행정상의 절차는 의외로 쉬웠다. 아버지의 서운하심을 뒤로 하고 독신으로 혼자 기재된 호적등본을 보면서 자유로움보다 '이젠 혼자이구나' 하는 허전함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이내 곧 나의 생각은 그 동안 속해 있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간으로 살게 되었다는 뿌듯한 마음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호적분가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나 한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직계가족의 재산능력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된다니 참으로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부모님이 작은 집 하나 있어도 안된다는 이유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지만, 가족의 재산능력을 장애 여성의 재산능력과 동일하게 보는 시각은 현실사회와 동떨어진 행정처리라고 생각된다. 가족이 재산능력이 있다고 해서 장애 여성에게 모든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장애 여성의 지원이 언제까지나 가족들의 의무로 주어져서도 안된다.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정책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찍이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상속하셨기에 나는 그나마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활하는데는 집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처음 집을 얻으러 다닐 때 적은 돈에 네 명이 살 수 있고, 장애 여성들이 쉽게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눌 정도의 공간을 찾았지만 곧 무리한 바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집이 있어도 장애인에게 쉽게 집을 임대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작이 쉽지 않음을 예감할 수 있었다. 적은 돈에 얻을 수 있는 집은 지하방들이었는데 거의 계단이 네 다섯 개씩 있어서 우리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마침 친구의 도움으로 고덕동에 계단 없는 집이 있다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년 남짓 살면서 우리는 이사 다니는 불편을 덜고 생활비를

절감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아파트를 신청해보았다. 그러나 호적에 독신으로 되어 있고 나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어찌다 된다고 해도 독신이라 제일 작은 평수 밖에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식구들과 함께 살수 없어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우리식구들과 한 세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도 알아보았지만 동거인은 될 수 있어도 가족으로서는 인정이 안된다고 한다. 우리가 살기에는 아파트 구조가 편한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 받기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고 우리가 편하게 살수 있는 집을 구하기에는 요원한 일이다.

장애여성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고 직장에 다닌다 해도 적은 임금에 아파트분양 받기는 어렵다. 역시 공공임대에도 독신장애 여성은 순차에서 밀린다. 결혼해서 남성의 부양가족이 되어야만 임대아파트에 해당된다고 한다. 오죽하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말이 '장애남성과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장애 여성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혼자살기에도 함께 살기에도 힘겨운 이곳에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처럼 독립해서 살고 싶지만 신체적 여건상 혼자살기에는 힘든 장애 여성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에게 지원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그룹홈을 한 세대로 인정해주고 큰 평수로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줘서 장애 여성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리라. 또한 독신으로 사는 장애 여성도 어느 정도 한정나이 제한을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재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기혼장애 여성들은 시설들(싱크대, 욕조)을 마음대로 구조변경 할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베란다에서 부엌살림을 차려놓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장애 여성들의 어려운 현실들을 경험하면서, 워싱턴에서 만난 유럽 장애 여성들의 당당했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들이 더욱 자신 있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장애 여성들이 자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또한 사회가 귀를 기울여 주었고, 그러므로 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애 여성의 문제는 장애인인면서 여성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공존한다. 이제까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알려지지 않았었고 그만큼 장애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많은 장애 여성뿐만 아니라 비장애 여성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장애 여성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지원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장애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나눔터**

나눔터 게시판

조영황 변호사님...

시군판사로 일하시기 위해 변호사 일을 그만두시는 조영황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상담소 이사직과 토요법률지원위원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질퍽한 땅을 일구는데 힘을 기울여주신 조영황 변호사님은 94년부터 상담소 법률자문위원으로, 95년부터는 토요법률상담위원장으로, 96년부터 상담소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자리에는 계시지 않아도 어디서나 흘리는 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상담소 (열킴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시거나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에스원, (주)유한킴벌리화이트, 김소피아, 김이윤상, 김지혜, 심창교, 원미경, 유자인, 이희숙, 조정완, 조화진, 최영애, 한은희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화, 김미경, 김은희, 맹신숙, 박귀자, 박미향, 박수용, 박순주, 오길향, 오현숙, 윤정숙, 이경희, 이석민, 이소진, 이순례, 이연실, 이은심, 이은정, 이정선, 최지영, 홍종순

4월부터 6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김경희, 김도희, 김미경, 김미영, 김세중, 김소명, 김순형, 김영애, 김은숙, 김일륜, 김춘란, 김혜숙, 김화영, 민재숙, 박순주, 배 경, 배은경, 송성애, 심화란, 양민희, 옥잉애, 우경아, 유성혜, 유숙영, 유승희, 육향순, 이명자, 이선순, 이선아, 이선영, 이선이, 이영애, 이윤미, 이재인, 이정아, 이푸른매, 임자영, 장명숙, 전경림, 전범용, 전승완, 정경란, 정경아, 정교화, 조경애, 조소연, 조정자, 주서현, 주세진, 차재순, 최말순, 최옥경, 최정운, 홍사을, 홍성복, 홍순영

4월부터 6월까지 회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식, 강정옥, 고순례, 권성희, 권진숙, 권혜수, 김미숙, 김병숙, 김은희, 김이윤상, 김주필, 김준호, 김지혜, 김현란, 김현식, 김혜원, 남순열, 노미순, 노주희,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응기, 박미숙, 박종민, 박진숙, 박희경, 변인희, 오숙희, 오현숙, 오희옥, 유수아, 윤용미, 윤이경미, 이경로, 이경룡, 이미경, 이영분, 이유정, 이은정, 이희숙, 임종은, 장연집, 장영복, 장윤경, 장정순, 정성광, 정유석, 정진옥, 조중신, 최동석, 최영애, 최지녀, 한은희, 홍승아, 홍은정

이런 일을 합니다.

<직장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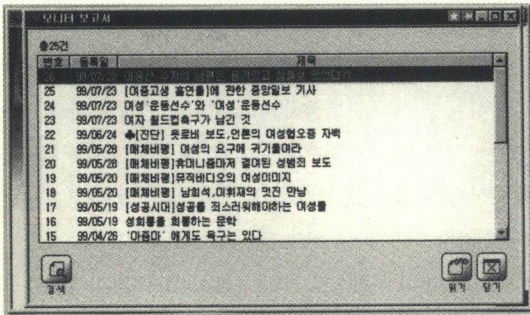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매매춘의 문제는 매춘여성의 문제로 한정되어 다루어져 왔고, 10대 청소년들의 향락산업에의 노출, 매매춘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있는 여성들, 청소년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에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남성들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그 수요자인 남성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10대 매매춘의 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경험, 그리고 현재의 정책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본 조사는 인터뷰와 설문조사가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참여를 꺼리는 남성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움을 주실 여러분의 연락을...

<열린터 5주년 기념행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린터가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9월 14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근친강간 등 지속적인 피해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피신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열린터에서는 내담자에게 심리상담, 의료, 법률, 각종 프로그램 등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년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원현황에 대한 실태분석, 심리·의료·법률지원을 비롯하여 성교육, 미술치료, 각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을 살펴보면서 각계 인사들과 함께 종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쉼터의 미래상을 구상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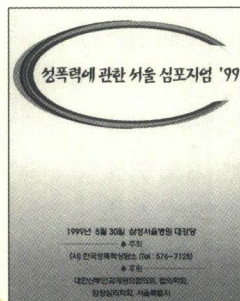
성교육·성상담 교사 연수가 본 상담소 교육실에서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32시간) 중등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본 연수는 항락적이고 폭력적인 성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평등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성가치관, 올바른 성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상담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디어시비결과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본 상담소 IP(유천 go stoprape)에 가시면 [미디어 시비결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모니터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고발합니다>란에 방문하셔서 대중매체에서 왜곡된 성문화를 유포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문제점들을 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건강한 미디어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 발간된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99>

본 상담소 8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피해자 지원에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의료지원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성폭력 지원에 필요한 다학제간 교류를 위하여 최영애(본 상담소), 박금자·임용택(산부인과), 소은희·안동현(신경정신과), 이철원·채규만(임상심리), 이윤성(법의학), 조희진(법무부), 오현숙(정신의료사회사업) 등 각 방면 전문가의 발제문이 실려있다. 부록1은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실려있다. 가격 : 8,000원 / 구입문의 : 유니경미 책임연구원 (02)576-5450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예방비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



청소년 성폭력 예방 비디오



다시

하나씩 꺼내어 곱씹어보고, 되돌려 고민하는 시간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 이 지면이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어 쟁점으로 삼고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이 시간에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순결운동'에 대한 이야기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여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한다.

순결운동 유감!!

'순결'이란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이를 추종하는 몇몇 이들에 의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순결계몽순회콘서트"가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왜 다시 '순결'을 불러들이는가? 그들은 음란퇴폐문화의 급증, 성문란과 프리섹스의 만연, 성폭력 세계 3위 등이 전통적 성윤리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주장하고, 에이즈 확산 방지와 미혼모 양산 및 낙태문제를 해결하고 이혼예방 및 결혼 가정 방지를 위해 참된 순결과 혈통을 강조한다.

우리는 '순결'이라는 단어가 갖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이전에, 그 단어가 지녔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순결'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이중적 성윤리, 성기중심적 개념으로 불평등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다. 여성의 성은 남자의 상속권과 가문계승의 목적을 위한 생식의 기능으로 발휘될 때 최상의 가치로 인정받았고,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결과 정절이 여성에게 절대적 의무로 강요되었다. 부계·부권은 남성에게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여성이 순결, 정절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여성에게 재산 가치의 의미, 다시 말해서 가장인 남성의 성적 소유권을 지키는 일로 필요로 되어졌다. 왜 조선시대도 아닌데 하필이면 조선시대의 순결논리로 순결운동을 반대하느냐고 묻는다면, 잘못된 역사를 묻지 않고 그 단어를 그대로 새 시대에 옮겨 놓으면 새로운 의미로 탄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한 성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억압적으로 사용·유지되어온 '순결'이라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려없이 그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이러한 주제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담론

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그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적 모순구조를 다시금 견고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또한 성폭력이 여전히 폭력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 성관계이며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현실과 결합하여 성폭력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순결의 억압적 기원에 대한 진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철체절명의 순간까지 이를 지켜내라는 식의 청소년 대상의 순결운동은 기존 남성중심 권력체제의 유지와 종교적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대여성폭력

신창원이 검거됐다. 그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나 그의 행적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다루어졌기에, 이 곳에서는 그를 둘러싼 갖가지 얘기들 중에서 하나를 주목하고자 한다. 공정한 수사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힘써야 할 경찰이 신창원 수사종결을 빌미로 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이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한 전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경찰의 면직처분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이쯤으로 끝났다 해서 그 사실이 이대로 묻혀질 수는 없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시대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잠재하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고, 또한 권력의 주도자인 남성에게 의해 성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심문하는 과정에서(1986년에 있었던 부친경찰서의 권인숙 성고문 사건),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한총련 연세대 농성 시 또는 노조집회 시), 재개발지역의 철거과정에서 등 여러 행태로 일어났다. 경찰들에게 순간 당한 대구 강정순씨 사건이나 입산부를 강간하여 자살하게 만든 고흥 김봉환 순경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사건들은 대여성폭력으로, 여성을 권력으로 조종하고 유린해도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배포되어 있으며, 그 인식이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현실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요구된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법체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특별법상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명시되어야 하며, 경찰에게 여성과 관련된 인권교육과 수사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눔터**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 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박미숙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99년 1월 “직장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한은희 부장 / (02)576-7128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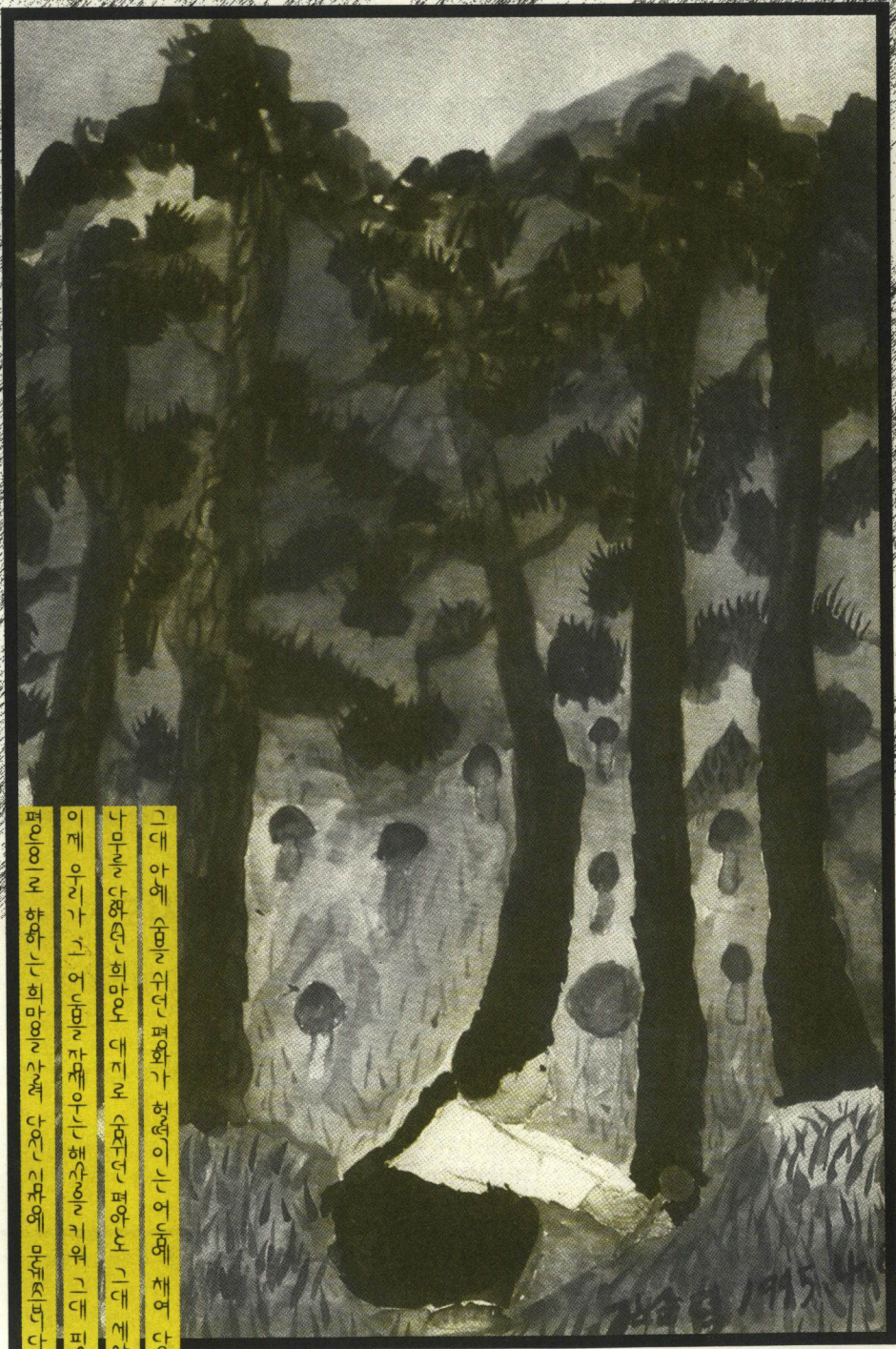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림터 : (02)529-4271~2, 위기상담 : (02)573-1888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차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이사** 강학중·문해란·민병진·박금자·오세민·윤장순·이상엽·이종걸·최영애·최은순 ● **감사** 회계사/배자하 세무사/차재능 ● **자문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이순열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 기독교윤리학/김희은 청소년교육/이규미 문화인류학/정병호 ● **법률** 검사/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권성희·김삼화·박성호·박찬운·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종걸·이향아·임종인·장경호·장재호·장철우·장갑생·장성광·정연순·조영환·최은순·최현희 경찰/김강자 ● **상담** 인간재활학/김종인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이철원·전양숙·정연옥 심리학/김정규·이윤로·이장호·이혜성·장연집·장남운·채규만 사회학/정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한인영·현혜순 상담심리학/권혜수 ● **의료** 가정의학/김종구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황적준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금자·박종민·윤경·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정경원·조삼현·조정현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최보문 외과/오세민·주수호 임상병리학/강정옥·문해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양창순·이나미·이수경·최진숙 치과/이상엽 ● **재정** 의사/민병진 회계사/배자하·임종은 대한적십자사자원위원/윤장순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여론조사/이상경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응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강학중·이인자 PD/고학찬 조소/홍성도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프리랜서/여남영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명구·김훈순·원용진·홍석경 기자/백지연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소장/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실·변혜경·이재경·장필화·조주현·허라금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장화정 통계학/이용재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김엘림·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대표이사** 박금자 ● **소장** 최영애



기쁜 흥분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풍경의 기운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산수화와 화음의 조화를 나타내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기쁘고 흥분한 마음으로
 표현하였는데, 흥분과 기쁨의 표현을 위하여 기운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 故 김순덕 할머니의 [어린시절 I]
 글 ● 박미숙